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부

농림축산부 장관 이동필 농경연 원장 내정
30여년 농업 국책연구 한우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17일 새 정부 농림축산부 장관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1955년 8월 경북 의성 출생으로 영남대 축산경영학과('78), 서울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81), 미국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91)를 취득했다. 그는 1980년 한국농촌경제원구원에 입사, 이 연구원에서 지식정보센터장('00)과 기획조정실장('02~'03) 등을 거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대 원장에 임명('11)됐다. 그는 국무총리실 농정심의위원회 실무위원('94),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04~현재),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제2분과 산업소위 위원장('06~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08~현재)을 맡고 있다.

이 내정자는 30여 년간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농업 정책연구와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종합적 · 합리적 사고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중장기농정대책 TF를 구성 · 운영하여 중장기 농정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농식품분야 중기재정작업반장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차원의 농식품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간 농정 미래 비전 수립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또한 농촌희망찾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 형성 및 현안 이슈 발굴을 주도했고, 귀농 · 귀촌정책연구포럼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시민의 성공적 귀농 · 귀촌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내정자가 농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복지농어촌 건설, 농어가 소득 증대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개방화 등 어려운 농정여건에서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행복한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하는 장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국민훈장 동백장(2011)과 국민포장(1999)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 연구저서에는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04), 농업, 가축 및 농용시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정비방안('01), 농산물전자상거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00), 2000년대를 향한 농촌정주생활권개발기본구상('82) 등이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3. 02. 2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등록 인증샷 올려주시면 선물드려요

'13년 1월 한 달간 2만6천건 동물등록
(총 24만두 등록) 대상동물 6% 등록 완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물등록 인증샷 & 인증후기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동물등록제에 참여한 동물 소유자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등록제의 긍정 효과를 전파하여 보다 많은 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박용호 본부장은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확대 시행된 이래 1개월 동안 반려견 2만6천마리가 동물등록 완료되었음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고 주인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도입되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경기, 부산, 인천, 제주 지역에서 약 21만 마리가 등록되었다.
'13년 1월에 등록된 2만 6천마리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4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48%, 인식표는 9%가 등록이 되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1만4천마리, 대구시 4천마리, 경기도 4천마리 등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1월 말 현재 총 24만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되었으며 전체 등록대상 두수 약 4백만마리 중 약 6%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질병 관리를 위하여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동물등록제가 잘 시행되려면 동물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거듭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

표준영농교본, '농업기술 길잡이'로

농촌진흥청의 '표준영농교본'이 '농업기술 길잡이'로 이름을 바꿔 발간된다. 아울러 '농업기술길잡이' 13종을 신규 발간하고 올해까지 기존 110종의 책자가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농업기술 길잡이'는 1974년부터 농업인들에게 품목별 농업교과서 역할을 해온 농촌진흥청의 대표적인 책자 '영농교본'의 새 이름이 됐다. 이 명칭은 지난해 7월 대내외공모를 거쳐 8월 농진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새로 발간된 13종은 최대한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농업용어로 썼을 뿐 아니라 생소한 용어의 경우 책자 한쪽에 박스로 넣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책자마다 장별 핵심내용을 요약한 '핵심 콕콕'을 넣고, 중간 중간 메모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책자의 활용도를 높였다. 농진청 박흥규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을 배려한 쉬운 용어와 핵심요약으로 농업기술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13년까지는 기존에 발행됐던 110종

의 책자 모두 최신 농업기술로 현행화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으로 서비스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최신 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행된 책자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계 고등학교에 배부돼 교육용으로 쓰이게 되며, 농업인의 경우 농업과학도서관을 통해 e-book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인신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문의:031-291-3288)

농업인신문 김수현 기자 2013. 02. 22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업 선진 기술 개발로 축산강국 이룬다

축산경쟁력 강화, 고품질 · 안전 축산물 생산, 미래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2월 13일 국립축산과학원 강당에서 농업전문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해 주요 연구 성과가 2011년 대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한 해 축산과학원 연구직 182명이 낸 SCI 급 논문수는 2011년 대비 30.7% 증가한 85건이며 산업재산권 수는 63% 증가한 163건, 정책제안은 38% 증가한 184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66건 중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기능소재 및 발효유 개발과 젖소 개량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유전능력의 우수성 국제적 입증, 돼지 유전체 지도 완성 및 유용 유전자 칩 개발 등 3건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스마트한 축산기술 개발 · 보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2017년 세계 7대 축산 기술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축산경쟁력 강화기술 ▲고품질 ·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미래대비 축산기술 개발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료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재배기술 확립과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우량종축개량, 보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품질 ·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 산업화, 축산물 품질 향상 및 고부가 소재 개발, 축산물 유통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대비한 축산기술로는 BT이용 고부가 형질전환동물개발과 유전정보 활용 가축 유전자원 실용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동물 복지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축산업은 농업부문의 생산액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식량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우리 직원들은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축산이 경쟁력을 갖춰 축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너무 엄격한 벤조피렌 기준' 재조정 추진

"환경 · 식문화 변화 따라 기준 조정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20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식품 내 함유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벤조피렌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데다 다량 섭취가 아닐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열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환경에 맞도록 벤조피렌 기준을 재평가하자'는 건의를 해왔다"면서 "환경과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을 한 뒤 소비자와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정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예산도 동결된 상태여서 용역연구를 당장 발주하기는 어려워 연내에 기준 변경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을 줄이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볶은 후 압착 과정을 거치는 참기름, 고추기름 등의 제조 공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벤조피렌 함유량에 대한 식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호주 등에는 없고, 한국, 유럽연합(EU), 중국에만 있다. 우리나라의 벤조피렌 기준은 대체로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더해 EU에는 없는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등)과 일부 농산물(흑삼, 흑삼농축액, 숙지황)에도 기준을 설정해 세계에서 벤조피렌 검출 기준이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힌다. 유럽인의 경우 벤조피렌 일일 노출량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7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은 훈제식육, 훈제어육, 식용유지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 중 식용유지 기준은 우리나라나 EU의 5배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 19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고추씨기름을 수입한 태경농산 등에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 기름을 회수 · 폐기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이용해 만든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은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2차 가공품인 농심의 라면스프에는 벤조피렌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임화섭 · 김경윤 기자 2013. 02. 20

축산물품질평가원

설맞아 온정 전달 릴레이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소외 이웃에 선물 전달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유무상)에서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부천 삼광전문요양원(원장 신태호)을 찾았다.

지역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 2년 동안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던 서울지원에서는 이날도 설을 맞아 등급판정 받은 계란을 선물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특히 지난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성금을 전달했던 서울지원은 직접 등급판정을 한 계란을 증정함으로써 선물에 작은 의미를 더했다.

안용석 평가팀장은 "올해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데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았다."고 전했다.
포천(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부천(삼광요양원)에서 연중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2013. 02. 07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HACCP기준원, 청렴도 제고 서약식 가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이 청렴서약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기반 구축에 나섰다. 기준원은 지난 2월 8일 9층 회의실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반부패 청렴서약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팀장 이상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기준원의 경영방침인 '투명 ·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정직하고 청렴한 '클린 기준원'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 02.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테스코-홈플러스와 손잡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테스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테스코(TESCO) 구매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농식품수출업체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테스코-홈플러스와 3자간 MOU를 체결했다.
최근 엔저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aT는 수출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리 농수산식품에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주기 위해 세계 최대 대형유통업체인 테스코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아시아 매장을 기점으로 유럽매장까지 입점확대를 꾀하고 있다. aT는 테스코 진출을 위해 홈플러스와 상호협력하여 국내 수출유망한 농식품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테스코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헝가리, 체코, 중국, 태국, 한국 등 12개국에 6,5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22조원에 달하는 세계 규모의 대형유통업체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테스코 아시아지역 식품소싱 본부장과 함께 태국, 중국에서 8명의 신선, 가공식품 구매 바이어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단감, 배, 딸기, 버섯, 돈육부산물, 스낵류 등에 관심을 갖고 구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은 8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일본시장 의존도를 벗어나 신규 주력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5년 새 각각 4%p, 5%p 증가한 16%, 15%이며, 한류가 유럽까지 확산됨에 따라 유럽수출도 증가 추세다. 따라서, aT는 이번 테스코-홈플러스 네트워킹을 본보기로 보다 다양한 창구를 이용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는 테스코가 진출한 여러 나라 매장의 수입 농식품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바이어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뒤 "수출상담회를 통해 최근 수출판로를 찾고 있는 돈육 부산물과 신선농산물 업체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테스코, 홈플러스와 협력하여 한국농식품의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설맞이 우리축산물 할인판매 '성황'

농협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설맞이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충남도청과 공동으로 지난 2월 7일 천안시청에서 가졌다.

이번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천안 축산물 브랜드인 능수한우를 약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한우불고기 · 한돈 · 농협 또래오래 치킨 · 유제품의 맛을 볼 수 있는 무료시식행사도 같이 있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충남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농협은 2월 8일에도 설 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충남농협 후정에서 개장하고 농축산물을 판매했다.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2013. 02. 18